목포 삼학도 관광유람선 사업 좌초 하나

코로나19 여파 관광객 없어 적자 누적…자금 조달도 어려워
9월 선박 구입 못하면 중단 불가피…목포시 "재정지원 불가능"

"영업 개시 두달이 됐지만 주중에는 승객이 없어 출항이 힘들고 주말·휴일에도 승객수가 적어 운영비 충당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선정과 함께 화려하게 부활한 '목포시 삼학도 유람선 관광 사업'〈광주일보 7월21일자 11면〉이 영업을 시작한 지 채 2개월도 되지 않아 중단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유람선을 찾는 관광객이 없어 운영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측은 "목포시에 재정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목포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사업자인 ㈜한국호남해운개발은 지난달 12일 목포해상 관광유람선을 취항했다. 대형선인 '삼학도크루즈'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969t급 유람선으로 승선정원이 570명이다. 공연장·연회장·야외행사장·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소형인 '유달산크루즈'는 196t으로 승선정원 180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끊기면서 채 2개월도 되지 않아 2억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관광 패턴의 변화 등으로 유람선 관광 사업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사업자 측은 "회사 운영상 인건비를 포함해 소요된 비용이 2억여 원인데 수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적자가 누적되다보니 당초 사업 제안서에서 제시했던 9월과 내년 6월 각각 유람선 1척씩을 매입한다는 계획은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은 목포시에 도움을 요청할 방침이다.

사업자측 관계자는 "정부에 관광진흥자금 60억원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자본금이 1억원이고, 법인 설립이 4년밖에 되지 않은 데다, 영업실적조차 없다. 이 때문에 관광진흥자금이 배정되더라도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목포시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은 지원 요청 근거로 지난 2월13일 목포시와 체결한 '목포 삼학도 관광유람선 실시협약'을 들었다.

협약에는 '목포시로부터 행정적 지원과 육상면적 약 1만㎡(주차장, 대합실 등)를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제공받고, 상호 필요한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재정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결국 사업자 측이 영업 부진으로 유람선 매입에 실패하거나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삼학도 유람선 관광 사업'은 좌초될 처지다.

이와 관련, 목포시의회는 "부실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목포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목포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영암 F1대회 사업에 부실한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정작 경기는 이어가지 못한채 빚더미만 떠안았다"며 "마치 삼학도 관광유람선 사업에서 전남도 F1사업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완도 섬따라 200㎞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 만든다

18억원 들여 2022년까지 개발
숲·해양 어우러진 산림휴양 서비스

섬과 바다, 숲이 어우러져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완도 섬길 200㎞를 따라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가 조성된다.

완도군은 오는 2022년까지 완도읍과 10여개 섬을 대상으로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조성해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완도군은 트레킹 코스 개발을 위한 1차 사업구간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섬자리 숲길이 조성되는 지역은 완도읍과 10여개 섬의 숲길, 임도, 주요 관광코스 등으로 총 200㎞에 달한다.

완도군은 2022년까지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완도읍과 군외면을 비롯해 신지·고금·약산 섬지역 숲길을 조성하고, 2단계는 금일·금당·생일·청산도 숲길을, 3단계는 노화·소안·보길도 숲길을 개발한다.

완도군은 현재 완도읍과 군외면 등 5개 읍·면 58.6㎞ 구간의 트레킹코스를 조성 중이다.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과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은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약산 치유의 숲 등을 중심으로 숲과 해양 경관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면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완도군은 기대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방역인 치유 활동이 각광을 받고 있다"며 "완도의 청정한 환경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이 2022년까지 완도읍과 10여개 섬의 숲길·임도·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총 200㎞ 구간의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조성한다.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 조성 사업' 1단계 구간 노선도.

영광군, 도로변 골칫거리 칡덩굴 소금으로 제거

"시범사업 결과 고사율 80.1%"
환경오염 방지·소금 소비 촉진

영광군이 소금을 활용해 칡덩굴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6년도에 도로변 칡덩굴 제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칡덩굴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에서 생산한 천일염을 활용해 칡덩굴 제거에 나섰다.

지난해 산림청에서 소금처리 칡덩굴 제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칡덩굴 고사율이 80.1%로 높았으며, 재발률은 20%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금을 이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군은 농약 등 화학적 방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소금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도비와 군 운용인력을 활용해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국도 22호선 도로변 3㏊와 물무산, 테마식물원 주변 산림 47㏊다. 이를 위해 군은 지역에서 생산한 천일염 120포대(20㎏기준)를 구입했다.

제거방식은 칡덩굴 줄기를 제거한 뒤 뿌리 부분에 50g의 소금을 넣는 방식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조림지와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를 통해 수목 생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금 생산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이 천일염을 활용해 골칫거리인 칡덩굴을 제거하는 사업을 펼친다. 〈영광군 제공〉

'대한민국 국토대전' 진도군 경관행정 우수상

진도군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경관행정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와 도시공간에서 경관 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진도군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경관행정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도군 242개 전체 마을의 경관을 개선시켜 삶의 질을 높인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모두 62억원을 투입해 담장 정비와 벽화〈사진〉, 소공원·꽃길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의 전설을 비롯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해 관광자원을 구축했다.

진도군은 또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마을 가꾸기 2단계 사업을 통해 지붕경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구례군, 60세 이상 주민 무료 치매조기검진 실시

구례군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기억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매 진단검사와 전남대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게 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8년 전남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주 수요일 협력의사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상담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협약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협약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진단검사와 원인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영상촬영(CT, MRI) 등을 진행한다.

구례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있다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체계적인 검진과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치매의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 매 물 건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공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공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공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공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